

美-이 “‘살라미’ 휴전 협상 한계…‘모 아니면 도’ 전환”

美 특사 “트럼프, 인질 한꺼번에 석방 원해”…하마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전까지 무장해제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과 연계한 단계적인 휴전 협상 대신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협상에 대한 접근법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전날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생존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이제 이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현재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을 조금씩 석방하는 살라미식 협상 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에 제시할 최후통첩 내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가 남은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고, 무장 해제에도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게

NYT의 전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괄적 타결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 1월에도 6주간 전쟁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이스라엘 군인 석방과 영구 휴전 등 2·3단계 논의를 시작한다는 단계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연장에 실패했다.

3단계로 진행되는 복잡한 휴전 단계를 이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스라엘은 최근에도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와 가자지구에서 60일간의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절차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권 행사와 함께 라파 검문소 개방, 필라델피 회랑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미국 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통한 구호품 배급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가 됐다.

이후 하마스는 갈비뼈 윤곽이 보일 정도로 양상한 생존 인질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인질 약 50명을 억류 중이다. 이 중 최소 20명은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추정이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테러 당시 250명 이상의 인질을 납치했다.

다만 이스라엘에서도 하마스가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하마스가 유일한 협상 카드인 인질을 석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하마스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며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를 제거해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지 않는 한 무장해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측)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우측).

/연합뉴스

이스라엘 인질 영상에…네타냐후 “심각한 충격”

“적십자, 인질 식량·의료 제공을”
텔아비브서 인질 석방 촉구 시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공개한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두 인질의 가족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총리는 모든 인질의 귀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가자지구에서 억류된 인질에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줄리엔 레리송 ICRC 이스라엘 대표의 통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에서는 수만 명이 집회를 열고 네타냐후 정부에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의 석방 확보를 촉구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 영상에 대해 “끔찍하고 하마스의 야만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마스는 무장을 해제하고 가자지구에서의 통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공개한 이스라엘 인질 에비아타르 다비드의 영상.

/연합뉴스

억류 중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 3개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 영상에 나온 에비아타르 다비드(24)와 독일·이스라엘 이중국적인 롬 브라슬라브스키(21) 모두 영양실조 상태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트트의 아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이스라엘 국민 다수가 가자지구 전쟁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데리고 와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타인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이날도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굶주림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AP통신은 병원 관계자와 목격자를 인용해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 최소 27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배급소에서 식량 수령을 기다리던 주민 9명을 비롯해 19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6명이 추가로 숨져, 전쟁 발발 후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가 175명(어린이 93명 포함)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북-중 경제교류 회복세…관계개선 시동

일 산케이신문 “본격화 여부는 고위급 왕래 지켜봐야”

중국과 북한 간 경제 교류가 회복되고 있어 중국이 북극 밀착 이후 냉각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국과 북한 간 무역 규모는 12억6075만달러(약 1조7000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약 3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수출은 10억5048만달러로 작년보다 33% 늘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건설 수요에 대응한 건축자재나 가구류 수출이 눈에 띈다며 작년 7월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피해를 본 신의주에서는 제방 증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여행 관련 사

이트에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잇는 열차와 평양과 중국 상하이로 왕복하는 항공편 정보가 올라 오기도 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흐름과 관련해 “중국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대북 대응을 조정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할 가능성이나 남북한 긴장 완화에 대비해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 회복이 본격 궤도에 오를지는 앞으로 고위급 왕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중국 언론 관계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이주민 태운 선박 예멘서 전복

68명 사망·74명 실종

아프리카 예멘 해안 인근에서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복돼 68명이 숨지고 74명이 실종됐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분쟁과 빈곤을 피해 부유한 걸프 아랍 국가로 향하던 아프리카 이주민들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로 수많은 이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인

154명을 태운 사고 선박은 3일 오전 예멘 남부 아비얀주 인근 아덴만에서 침몰했다. 인근 해안 등지에서 시신 68구가 발견됐다. 생존자는 12명뿐이며, 나머지는 실종 상태로 추정된다.

아비얀주 보안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대규모 모수색 및 구조 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예멘은 1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걸프 지역으로 가는 주요 경로다. IOM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예멘에 도착한 이주민은 6만명 이상이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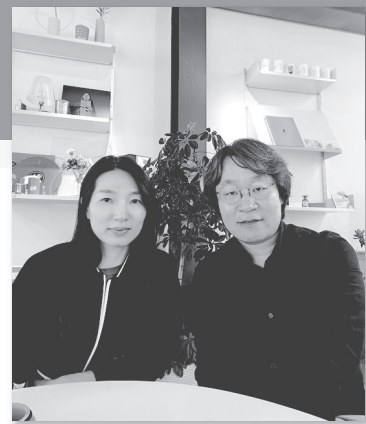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